

강진군, 3.1절 기념 제68회 전국 도로사이클대회 개최한다

다음달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총 158km 세 차례 레이스 펼쳐
모든 선수 코로나19 검사 결과 필수 제출...전 경기 무관중 진행

강진군은 오는 3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제68회 3·1절 기념 전국 도로사이클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올해 사이클 시즌 개막을 알리는 첫 대회로 강진군이 후원하고 대한자전거연맹이 주관한다. 전국의 엘리트 남녀 선수들은 강진 종합운동장 앞을 출발해 158km에 이르는 개인 도로경기와 강진종합운동장 외곽도로에서 실시하는 크리테리움 경기까지 총 세 차례 레이스를 펼친다. 비교적 짧은 1.3km를 23회, 총 30km를 왕복하는 크리테리움 경기는 종목

의 특성상 평균 주행 속도가 시속이 50km 이상을 유지해 어떤 다른 경기보다 박진감 넘치는 레이스가 펼쳐진다고 한다. 대회 첫째 날과 둘째 날인 3일과 4일은 종합운동장에서 출발하여 소방서, 까치내재, 풀치재, 성전면을 거쳐 강진우시장 앞에 끝나는 장거리 코스를 돌며 경기가 진행된다. 셋째날인 5일은 종합운동장에서 출발하여 소방서, 까치내재, 작전중학교, 흥교관, 군동화방마을을 거쳐 농업기술센터 앞에서 끝나는 단거리 코스를 돌며 경기가 진행된다.

마지막 날 열리는 크리테리움 경기는 이전 대회까지는 성전산업단지 외곽도로에서 열렸으나, 올해부터 강진 종합운동장 외곽도로에서 열리게 된다. 지난해 말부터 현재까지 사이클 국가대표 후보 선수단을 비롯해 음성군청, 전북체육고등학교, 삼양사 등 20여 개 팀이 강진군에서 전지훈련을 통해 경기력을 끌어 올리고 있다. 또한 대회에 참가할 예정인 선수단도 속속 강진군에 입성하고 있다. 강진군은 코로나 19로부터 안전한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대회에 참가하

는 모든 선수에게 코로나19 검사 결과 필수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모든 경기를 무관중으로 진행하고 선수 학부모의 강진 방문 금지 안내, 손소독제·마스크 구비 등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비책도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 사이클 선수들의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한 차량 통제를 위해 군은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와 강진경찰서, 강진군청 공무원의 헌신적인 봉사를 통해 성공적인 대회를 치른다는 방침이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제68회 3.1절 기념 강진투어 전국도로사이클 대회를 통해 각 선수와 임원이 강진에서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다하여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온 힘을 기울이겠다. 코로나19 확



산 방지를 위해 방역 대책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의 자전거 동호인 500명 이 참가하는 2021 강진투어 마스터즈 대회는 코로나19 여파로 올해는 취소됐다. 강진=김영일 기자

'탄탄한 입지' 김광현, 작년과는 확 바뀐 시즌 준비

STL 감독 "김광현은 선발" 스스로 리듬 찾도록 배려도

한 시즌 만에 위상이 완전히 달라졌다. 김광현(33·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은 올해 스프링 캠프부터 선발로 준비한다. 24일(한국시간) MLB닷컴에 따르면 마이크 실트 세인트루이스 감독은 "김광현은 우리 선발 로테이션에 있다"고 말했다. 매체는 "2021시즌 김광현의 역할을 공식화했다"고 설명했다. 김광현은 빅리그 데뷔 첫 해였던 지난해 '경쟁자'의 위치에 놓여있었다. 세인트루이스는 2020시즌 개막 전 잭 플래허티, 애덤 웨인라이트, 다코



타 허드슨, 마일스 마이클라스까지 4명의 선발을 확정된 가운데 남은 한 자리를 두고 카를로스 마르티네스와 다투었다. 결국 마르티네스에 밀려 선발이 아닌 마무리투수로 시즌을 맞이한 김광

현은 한 경기 만에 선발로 보직을 옮겼다. 그리고 8경기(7경기 선발)에서 3승 무패 1세이브 평균자책점 1.62의 뛰어난 성적으로 메이저리그 첫 시즌을 마무리했다.

실력을 인정받은 김광현은 이제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선발 투수 대접을 받고 있다. 입지를 다지기 위해 스프링캠프부터 전력을 다했던 지난해와는 시즌 준비부터 달라졌다. 일찍부터 페이스를 끌어 올리지 않아도 정규시즌에서 보여주면 된다. MLB닷컴은 "김광현은 이날 투구 훈련을 했지만, 라이브 피칭은 하지 않았다. 실트 감독과 코칭 스태프는 김광현이 리듬을 찾을 수 있도록 배려했다"고 적었다. 실트 감독은 "정규시즌에 들어가면 김광현이 가장 좋은 컨디션에서 등판할 수 있는 계획을 짜기 위해 그와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김광현도 현지 인터뷰에서 "선발로 등판하면 준비시간도 있고, 경기에 들어갈 몸을 만들 수 있다. 해왔던 모습으로 하는 게 나에겐 조금 더 편한 거 같다"며 선발 보직에 대한 애착을 드러낸 바 있다.



김원형 신세계 야구단 감독, 추신수 기용 구상은 "코너 외야수 무계...일단 상위타순"

메이저리그(MLB) 정상급 타자로 뛰어난 추신수(39) 영입에 반색을 표한 김원형 신세계 야구단 감독은 곧바로 기용 구상에 돌입했다. 김 감독은 23일 신세계 야구단의 추신수 영입이 발표된 뒤 "추신수를 코너 외야수로 기용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타순도 메이저리그에서 뛰었던 상위타순에 일단 기용하려 한다"고 밝혔다. 메이저리그에서 통산 1652경기에 출전한 추신수는 1285경기에 외야수로 선발 출전했다. 이 중 우익수로 922경기, 좌익수로 203경기에 선발 출전하는 등 주로 코너 외야수로 뛰었다. 중견수로도 160경기에 선발 출전했지만, 2014년 텍사스 유니폼을 입은 뒤에는 코너 외야수 로만 경기에 나섰다. 추신수는 텍사스의 팀 상황상 2017년부터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하는 경기가 늘어났다. 2017년 65경기, 2018년 85경기, 2019년 61경기에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했고, 팀당 60경기의 단축 시즌을 치른 2020년에는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한 경기 수가 13경기였다. 하지만 김 감독은 추신수를 코너 외야수로 기용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

다. 김 감독은 "추신수는 빠른 발과 강한 어깨를 갖추고 있다. 전성기만큼은 아니겠지만, 몸 상태로 볼 때 외야수비를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신수는 메이저리그에서 뛰는 16시즌 동안 호타준족의 상징인 20홈런-20도루를 통산 세 차례나 달성했다. 걸출한 선구안을 앞세운 출루 능력과 장타력을 고루 갖춘 타자다. 메이저리그에 파위가 좋은 타자가 워낙 많아 추신수는 주로 상위타순에 배치됐다. 1번 타자로 선발 출전한 경기가 730경기로 가장 많다. 추신수가 가진 파위를 고려했을 때 KBO리그에서는 중심타자로 뛰어도 어색함이 없다. 그러나 김 감독은 익숙한 타순에 배치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감독은 "몸 상태를 보고, 팀 전체 상황에 맞게 기용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전제한 뒤 "일단 미국에서 많이 뛰었던 상위타순에 배치하려고 생각 중이다. 편안한 타순을 파악하고 팀 상황을 고려해 맞춰줄 생각"이라며 "중심타순에 가도 무리는 없지만, 워낙 출루율이 높은 타자에게 상위타순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피겨 차준환, 1년만에 공식 대회 출전...새 쇼트 선보여

프리스케이팅은 지난 시즌과 똑같이



한국 피겨스케이팅 남자 싱글 간판 차준환(20·고려대)이 1년 만에 공식 대회에 출전한다. 세계선수권대회 출전권이 걸린 대회다. 차준환은 24-26일 경기도 의정부 실내빙상장에서 세계선수권대회 파견 선수 선발전을 겸해 열리는 제75

회 전국남녀 피겨스케이팅 종합선수권대회에 출전한다. 차준환이 공식 대회에 나서는 것은 지난해 2월초 서울에서 열린 국제빙상경기연맹(ISU) 4대륙선수권대회 이후 1년 만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

로나19) 여파로 대회가 줄줄이 취소되면서 차준환은 1년 동안 훈련에만 매달렸다. 지난해 3월 세계선수권대회, 10월 2020-2021 ISU 그랑프리 2차 대회가 코로나19로 모두 열리지 않았다. 차준환은 1년 만에 나서는 공식 대회에서 새로운 쇼트프로그램을 선보인다. 그는 2020-2021시즌 새로운 쇼트프로그램으로 랄프 본 윌리엄스의 '다크 파스토랄(Dark Pastoral)'을 선택했다. 프리스케이팅은 2019-2020시즌 프로그램을 그대로 쓴다. 제니퍼 토마스 and 킴벌리 스타르키의 '더 파이어 위딘(The Fire Within)'이다. 차준환의 매니지먼트사인 브라보 엔터테인먼트는 "지난 시즌과 비교해 프로그램 구성에 큰 차이는 없다"고 전했다. 2019-2020시즌 차준환은 4회전

점프를 쇼트프로그램에서 한 차례, 프리스케이팅에서 두 차례 뛰었다. 쇼트프로그램에서는 퀴드러플 살코를, 프리스케이팅에서는 퀴드러플 살코와 퀴드러플 토티플을 시도했다. 차준환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대회가 취소되고 훈련장이 폐쇄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경기력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이 1년 앞으로 다가온 만큼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전했다. 이 대회 5연속 우승을 노리는 차준환은 25일 쇼트프로그램, 26일 프리스케이팅에 나선다. 이번 대회 시니어 남자 싱글 1위와 시니어 여자 싱글 1, 2위 선수에게는 다음달 23-29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리는 세계선수권대회 출전권이 주어진다.

이찬동, 제주 떠나 5년 만에 친정팀 광주FC 복귀

2014년 K리그2 소속 광주서 프로 데뷔해 1부 승격 이끌어
왕성한 활동량·강력한 압박·투쟁심 장점 수비형 미드필더

이찬동(28)이 프로축구 K리그1 제주 유니티를 떠나 친정팀 광주FC로 돌아왔다. 광주 구단은 23일 "이찬동을 제주로부터 완전 이적 형태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2014년 K리그2(2부리그) 소속이던

광주에서 프로 데뷔한 이찬동은 첫해부터 31경기에서 1골을 넣으며 팀의 1부리그 승격을 이끌었다. 이후 2016년까지 세 시즌 간 활약한 뒤 2017년부터 제주에서 뛰었다. 광주에서 활약을 바탕으로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참가했고,

2018년엔 제주 소속으로 태극마크를 달고 A매치 2경기를 소화하기도 했다. 광주 구단은 "183cm 80kg의 다부진 체격을 지닌 이찬동은 왕성한 활동량과 강력한 압박, 투쟁심이 장점인 수비형 미드필더"라고 기대했다. 5년 만에 광주에 복귀한 이찬동은 "간절함을 안고 광주에 왔다. 초심으로 돌아가 광주의 발전과 더 높은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추신수, 부모님 앞 뛰고 싶어 한국행 고려"

추신수(39)가 신세계 야구단과 계약하고 한국행을 택한 이유를 밝혔다. 텍사스 지역지 포트워스 스타 텔레그램은 24일(한국시간) KBO리그에서 현역 생활을 이어가기로 한 추신수의 인터뷰를 전했다. 가족과 나이 등을 고려한 선택이었다. 그는 "추신수의 부모는 추신수가 프로에서 뛰는 모습을 직접 본 적이 없다. 추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뛰는 16년 동안 TV에서 경기하는 것을 지켜봤다"고 썼다. 추신수는 지난해 개막전에 그의 부모를 모시려고 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속에 무산이 됐다. 추신수의 아내와 아이들

이 현장에서 지켜봤던 시즌 마지막 경기도 참석할 수 없었다. 추신수는 "부모님 앞에서 뛰고 싶고, 한국 팬들에게 보답하고 싶다"며 신세계 야구단과 계약한 이유를 설명했다. 카일 슈워버(28·워싱턴 내셔널스)도 추신수의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 슈워버는 빅리그 첫해였던 2015년 부터 지난해까지 줄곧 시카고 컵스에서 뛰었다. 2017년 30홈런을 치는 등 통산 121개의 홈런을 날린 거포지만, 2020시즌 뒤 논텐더(조건 없는 방출)로 풀려 워싱턴과 1년, 1000만 달러에 계약했다. 불혹을 바라보는 추신수는 더 나은 계약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